

MBC, 여의도 사옥 부지 매각



5,555㎡이다.

본사는 이 가운데 업무시설(지하 4층, 지상 32층 중 지하 3층~4층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차장을 제외한 57,998㎡, 17,544평) 1개동을 건물을 짓기 전에 선매입하게 된다. 비용은 부지 매각대금 가운데 일부로 충당한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구 사옥 철거 후 착공,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본사는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부터 임대를 시작해서 5년 동안 700억원 정도를 임대료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오피스 건물이 완공되면 매년 꾸준한 임대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방송사업에서 다소 부침을 겪더라도 임대 수익이 버팀목이 돼주기 때문에 MBC는 이번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건물의 디자인과 설계는 일본의 '모리빌딩 도시기획'과 덴마크의 설계회사 '어반 에이전시' 그리고 한국의 '기안건축' 등 세계적인 업체들이 참가함으로써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새 건물은 여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회원들이 몸담아 '여의도 시대'를 꽃피웠던 MBC 여의도 사옥이 내년 중에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1981년 컬러방송이 시작되면서 컬러용 스튜디오를 짓기 위해 건축을 시작해 1982년에 준공됐지만, 85년 여의도 스튜디오를 증축해 본사를 여의도로 옮겼고, 이후 2014년 상암동으로 이전할 때까지 30여년 동안 MBC의 명성을 드높인 수많은 프로그램을 생산해 낸 귀중한 산실이였다.

MBC는 6월 7일, 여의도 방송센터 부지를 신영-NH투자증권-GS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MBC부지복합개발PFV'에 6,01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을 완료했다.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서류형태로 존재하는 명목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말한다.

본사는 계약금으로 10%를 받

으며 잔금은 내년 2/4분기로 예상되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점에 받게 된다. 매각에 따른 세금은 법인세로 납부하게 되는데 세액은 내년 영업 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여의도 부지에는 복합시설단지 4개동이 들어선다. 부지에는 각각 지하 4층 지상 32층짜리 업무시설 1개동, 49층짜리 오피스텔 1개동, 그리고 49층짜리 공동주택(아파트) 2개동이 들어선다. 건물 전체 연 면적은 24만

스마트 경영의 시작
오바마, 메르켈처럼 스피치하라!
MBC Speech CEO Program

제3기 MBC 스피치 최고위 과정

주요 강사진 (외 다수)



스피치 최고위 과정
원장 차인태



강재형
아나운서
MBC아나운서 국장
'우리말 날들이',
'생방송 화제집중'
등 진행



유내경
아나운서
前 여주MBC, 평화
방송 아나운서
MBC 스피치 최고
위 과정 지도 교수



이효진
아나운서
前 청주MBC, 울산
UBC아나운서
MBC 스피치 최고
위 과정 지도 교수



권용식
아나운서
前 HCN 아나운서,
MBN MC
MBC 스피치 최고
위 과정 지도 교수



이종선
대표
이미지디자인컨설팅
대표
삼성경제연구소 'SERI
CEO' CEO PI 담당



조미경
대표
CMK이미지코리아
대표
국제이미지컨설팅
협회 서울캠퍼스 회장

과정 특징

- ◆ MBC만의 독창적인 스피치 교육 커리큘럼
- ◆ CEO 리더에게 필수적인 스피치 능력의 배양
- ◆ 1:1 개인별 맞춤형 실습으로 현업적용도 배가
- ◆ 성공으로 가는 스마트 리더의 조건 제시
- ◆ 셀프브랜딩을 통한 경영철학의 확립과 리더십 배양
- ◆ 성공적인 기업의 최고경영자 이미지 구축
- ◆ MBC의 다양한 교육 / 문화컨텐츠와 네트워크 활용

입학 안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18년 10월 5일(금)까지
- 교육 기간 2018년 10월 11일(목) ~ 2019년 6월 13일(목)
매주 목요일 18:00~21:30
- 교육 장소 MBC아카데미(잠실), MBC 본사
- 교육 대상 ▶ 기업 최고 경영자 및 임원 / 전문직 종사자
▶ 국회의원, 정부 공공기관 고위인사 및 사회 각 분야 인사
▶ 스피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각계 인사
- 전형 방법 서류전형 및 개별통지

봄철 바둑대회 성황리에 마쳐

〈사우회장배 2018년 봄철 바둑대회〉가 5월 30일 오전 사우회 사무실에서 40여명의 바둑동호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이유호(편제) 회원이 A조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한익(기술) 회원은 B조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A조 준우승은 신대근(보도) 회원이, B조 준우승은 장용택(관리) 회원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매월 1,3주 수요일 마다 개최되는 친선 바둑 모임에 한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참석한 육창웅(편

제), 정영수(관리), 이한익(기술), 김세중(관리), 이종성(기술) 회원들이 지난해 가을에 이어 두 번째 ‘우수참가상’을 수상했다. 바둑동호회 박종규 회장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수참가상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상을 받은 다섯 회원들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참석해 온 최우수 회원들”이라고 수상자들의 근면함을 칭찬했다.

이날 회원들은 사우회가 제공한 오찬을 같이 나눴으며 사무처는 대회에 참가한 회원과 참관한 회원 모두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5월 15일 재개된 ‘백내장 수술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받은 회원은 6월 말 현재 5명이다. 사무처 집계 따르면, 최x호씨 등 회원 3명과 박x옥씨 등 회원 가족 2명이 6월 중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사우회원들이 백내장 수술을 희망할 경우 사무처는 수술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지만, 사우회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조기에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수술을 희망하는 회원들은 서둘러 수술받을 것을 당부했다.

JC빛소망

안과는 여의도에 위치한 대형 안과 병원으로 사우회와 상호 협력 협정을 체결, 회원들에게 진료비와 치료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우회는 이미 2016년부터 2017년 2월까지 8개월동안 66명의 회원(가족 포함)들에게 2천 3백여만원의 수술비를 지원한 바 있다.



최경배 대표 원장의 수술 장면

‘시티투어’, 이용해보셨나요?



심 준 보(업무)

6월 14일 문광회원들과 ‘여주지역 문화유적 탐방행사’를 갖기로 했다. 평소 ‘시티투어’를 애용하는 본인은 그동안 부산, 대구, 경주, 제주 등에서 ‘시티투어’를 했던 경험으로 ‘1일 가이드’를 맡게 됐다.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여주 지역에서 시티투어 출발시간을 알아냈고, 그 시간에 맞춰 오전 아홉시 반, 경강선 ‘판교역’을 출발해 ‘여주역’에 도착하니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하철요금 공짜에 이어 시티투어도 경로할인을 받아 저렴한 가격의 일상탈출을 시작했다.

평일인데도 거의 만석이었다.

여주지역 시티투어는 A코스와 B코스로 나뉘어 운행한다. 우리는 <여주역—세종대왕릉—전통5일장—신록사—목아박물관—강천보—금은모래유원지—황학산수목원—명성황후생가—프리미엄 아울렛—여주역>으로 이어지는 A코스를 택했는데, 시간 관계상 3,4군데만 보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 “**신록사, 수목원, 명성황후생가**” 3군데에서 각 한시간 반씩 머물기로 했다. 신록사로 향하는 버스에서 기사는 유적지 해설과 함께 약 한 시간 뒤에 다음 버스가 신록사 정거장에 오므로 시간에 맞춰 기다리면 다음 코스로 쉽게 이동할 수 있음을 알려줬다.

강가에 세워진 유일한 사찰인 ‘신록사’의 불이문, 대웅전을 보고 나서 남한강변 정자에 앉아 황포나룻배를 바라 보고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어 사전에 파악한 식당에 연락해 식당주인이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가든식당에 도착, 오리고기쌈밥으로 무공해 건강식을 했다. 식사 후 ‘황학산수목원’으로 이동, 신록이 우거진 수목원에서 숲해설가의 설명을 듣고 경내를 걸으며 초록의 물결에 잠겨 자연을 만끽했다.

이어지는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명성황후생가’를 찾아 한 시간 가량 둘러본 뒤, 다음 버스로 ‘여주역’에 도착해 경강선열차에 몸을 싣고 서울로 향하니 어느새 기나긴 하루 해가 기울었다.

“시티투어”는 실속도 있고 편리하다. 먼저, 가고자 하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찾아 해당 내 ‘관광’사이트로 접속해 시티투어 운행시간과 승차 장소 등을 파악한다. 또한 가고픈 유적지, 노선도, 운행시간, 비용, 유명 식당 등 필요한 내용을 확인, 전화로 예약하거나 현지에서 티켓팅한다.

더불어 최근에 현지를 다녀온 유경험자의 블로그 몇 개쯤은 찾아 읽고 떠나면 더욱 도움이 된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므로 비용이 싸고 안전하며, 현지인 기사가 해설을 해주며 지역 자랑도 곁들인다.



시티투어 버스는 2가지 타입이 있다. 하나는, 버스가 유명한 장소를 시간표에 맞춰 순환 운행하므로 특정 장소에서 관람이나 식사를 하고, 운행시간에 맞춰 내렸던 그 정거장에서 다음 버스를 기다려 승차해 계속해서 나머지 장소를 구경할 수 있는 것(부산, 대구, 광주, 제주, 여주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이 이에 해당)과, 다른 하나는, 하루에 한두 차례 정도 같은 버스를 타고 예정된 코스를 순회 운행하는 것(경주, 군산, 부여, 목포, 여수 등)이 있는데, 후자는 특정 요일, 또는 야간에만 운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봐야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부담이 적고, 훌가분하게 어디든 갈수 있고, 음악과 함께라면 더욱 흥겨운 여행. 유유자적 발길 달는 대로 사색과 함께 문화의 향기도 맡을 수 있는 ‘시티투어’를 사우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다.



경·조사

■ 구순 ■

김성훈(특별)08/01 최계환(ANN)08/19

■ 팔순 ■

박영달(기술)08/07	이종섭(대전)08/17	원병희(편제)08/21
이훈상(대구)08/24	백운문(대구)08/28	최우형(업무)08/31
정동영(대구)09/01	김은식(업무)09/10	김종복(편제)09/19
김학윤(기술)09/23	이복자(대구)09/26	이성구(대구)09/26

■ 고희 ■

김희철(관리)08/03	고장석(편제)08/15	정명규(편제)08/15
지석원(편제)08/23	이옥진(미주)08/28	성철중(편제)09/04
유조동(관리)09/27	이영곤(편제)09/27	

■ 회갑 ■

방운식(관리)08/01	지원용(미주)08/07	김창옥(ANN)08/10
윤영란(관리)08/19	김영애(관리)08/20	이경희(관리)09/01
김갑수(관리)09/02	정효식(기술)09/05	정상열(관리)09/09
김성익(관리)09/15	이상훈(관리)09/24	

■ 결혼 ■

장철수(편제)아들06/03	선남준(관리)차녀06/03
이명자(편제)장남06/23	박노홍(보도)차남07/07
이광열(편제)장남07/07	박승선(관리)장남07/14

■ 부음 ■

전종건(관리)모친상05/18	오범성(관리)모친상05/19
김성수(보도)모친상05/24	이만규(관리)장모상05/26
한윤희(관리)장모상05/31	권오승(보도)장모상06/01
김인홍(기술)모친상06/24	문철호(보도)모친상07/06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김상진(보도) 010-5287-1586 은평구 진관 4로 87
최재혁(ANN) 010-8728-0485 양천구 목동서로 38
송일준(편제) 010-8728-1394 용산구 장문로 141

■ 연회비 ■

5월 : 김병문('18) 김성수('14~'17) 김점용('18) 김태인('19, 80세 납부 끝)
김흥배('18, 80세 납부 끝) 문정철('18~'20) 백재인('17)
유민환('18) 유흥철('18) 윤상준('21) 이오기('18) 임영규('18)
정태웅('18~'19)

6월 : 김상진('18) 문진영('16~'18) 박수명('17~'18, 80세 납부 끝)
백성원('18) 오순심('18) 전정익('18) 하광언('18) 하민웅('18)
홍학표('18)

7월 : 김규홍('17~'19) 김진호('17~'18, 80세 납부 끝)
박웅곤('21~'22, 80세 납부 끝) 이성화('16~'18, 80세 납부 끝)
정승호('18)

■ 평생회비 ■

최재혁(ANN)06/18 송일준(편제)06/27

번호 / 주소 변경

편제 : 고일미 성북구 화랑로 235
김익원 강남구 봉은사로 25길 13-4
김포천 광주시 남구 노대실로 33
유혜자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

보도 : 고 진 경기 파주시 야당동 193-6
김경중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 2로 251
선동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으로 34

ANN : 최혜숙 서초구 현릉로 8길 10-12

업무 : 오주환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0

관리 : 김경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60-2
엄기원 경기 광명시 안현로 15
이석원 010-5013-2092 강서구 까치산로 4가길 18

회비납부에 관한 안내말씀

사우회 발전을 위해 회원들께서 매년 보내주시는 회비는 사우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경조사에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회무규정 제 4조에는 “연 회비를 5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함으로써 경조비 지급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경조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납부 관련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무처로 연락하셔도 즉시 확인하여 드리니 참고하셔서 회비 장기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회비납부계좌: KEB하나은행
회비 미납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158-890070-29405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철호(보도)

6월 19일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경향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 1976년부터는 MBC보도국에서 기자 생활을 계속했다. 경제부장, 문화과학부장, 보도부국장, 해설위원을 역임했다. 국립 국악원 운영자문위원 역임, 국악 칼럼니스트



임창영(관리)

6월 22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1968년 2월 MBC에 입사, 비상 계획부에 근무하다 1996년 11월 정년 퇴직했다. 퇴직 후에는 사우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정오(기술)

6월 21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1년 전 폐암을 발견하고 투병 중이었다. 1961년부터 KBS에서 근무하다 1968년 MBC로 자리를 옮겨 기술국에서 근무했다. 퇴직 후에는 한국인타터공업(주) 상무, 주)천광상사 전무 등을 역임했다.

회/원/동/정



최재혁(ANN)
6월 1일자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방송언어 순화 및 개선을 위한 정책 관련 자문을 한다. 임기는 내년 5월 31일까지다.



성경섭(보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지식캠퍼스>에 '성경섭이 만난 사람'에서 진행했던 명사 인터뷰와 인문학 칼럼을 접목한 '명언으로 보는 인문학' 동영상 강좌를 개설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6월 27일, 한·중수교 초창기 북경에 주재했던 한국특파원들을 대사관으로 초청, 한·중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열(보도), 문철호(보도), 이성수(보도)** 회원이 참석했다.



차인태(ANN, MBC아카데미 스피치 최고위 과정 원장)

제3기 스피치 최고위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최고 경영자와 공공기관 고위인사 등을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8개월간 독창적인 커리큘럼으로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중구(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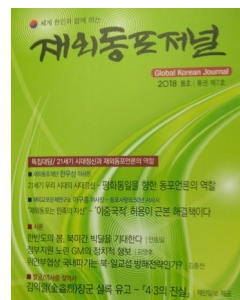
6월 7일 시설관리부문 퇴직사우 모임인 청죽회 임시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총무가 동반 퇴임함에 따라 전종철 회원이 임시 총무로 수고하게 되었다.



박기병(관리)

모국과 재외 동포 사회의 가교인 재외동포저널 제7호를 발행했다. 이번 호에는 '자료' 발굴 역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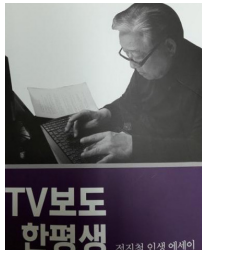
찾아서-‘제주 4.3사건의 진실’(김익렬장군 실록 유고)과 ‘김형욱 실종사건’ 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려 있다.



정진철(보도)

자신의 TV카메라 인생을 총정리한 에세이집 ‘TV보도 한평생’을 발간했다. 정회원은 머리말에

서 “혈벗었던 시절에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았던 세대들의 애기와, 뉴스를 쫓아 카메라를 메고 뛰어 다녔던 시절의 애환들을 고루 담았다”고 소개했다.



동/호/회/소/식

문기회(회장 정홍보)

6월15일 저녁 서울 태평로 뉴국제호텔 15층 뷔페식당에서 열린 월례모임에서 올해 팔순을 맞은 김진호, 김정수 두 회원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29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엄기영 회원의 축하 건배사와 두 팔순 회원의 인사말, 정홍보 회장의 꽃다발 증정, 신대근 사우회 부회장의 선물 증정 등의 순으로 두 시간 동안 화기애애하게 이어졌다.



정홍보 회장, 김정수, 김진호

몽골(Mongolia)에서 깨우친 것



정수열(편제)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두 학기 동안 몽골을 란 바 토르(Ulaanbaatal)에 있는 이흐자삭(Ikh Zasag) 대학에서 한국어 가르쳤습니다. ‘징기스칸의 법’을 뜻한다는 ‘이흐자삭’이, 몽골어가 익숙하지 않은 제 귀에는 ‘이 자식’으로 들려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몽골 학생들의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열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방송 현업 시절 우리 글과 말을 정확하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틈틈이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왔는데 이번에는 직접 몽골 대학에 가게 된 것입니다.

추위가 시작되는 10월이지만,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기숙사 방이 그렇게 쾌적할 수 없었고, 혼자 있는 시간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SNS 공해(?)에도 시달리지 않아 더욱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유자적한 시간도 잠시. 심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울란바토르가 몽골의 수도라고는 하지만, 정전이 잦고 와이파이가 두절되기 일쑤입니다. 어느 휴일, 정전으로 TV도 나오지 않고 와이파이도 끊겨 외부와 소식이 단절되고 보니 갑자기 무료해졌습니다.

익숙한 학교 캠퍼스를 산책했지만, 시간이 가지 않았고 이른바 homesick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슬퍼지면서 ‘외롭다’는 감정을 추스를 수 없었습니다.

문득 “아, 사람을 외롭게 하는 것이 큰 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식을 서울로 올려 보내고 외롭게 노후를 보내셨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아파

왔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때는 그 흔한 전화도 없이 자식의 문안 편지만 기다리셨을 고향의 부모님께 ‘참 불효를 했다’는 회한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이른 아침 눈을 뜨니 아직도 밝은 잠꼬였습니다. 서둘러 몽골 선생들이 출근할 교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그렇게 위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TV가 다시 소리를 내고 와이파이가 터져서 연속되는 “카톡 카톡” 소리가 들려오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일은 깊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정보의 홍수 속에 SNS의 폐해



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TV를 집 안에 들이지 않는 사람도 늘어나고, 카톡 등 SNS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어지간히 SNS의 홍수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외로운 사람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떠드는(?) 외국 TV나 라디오도 위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몽골생활에서 새삼 느낀 것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을 외롭지 않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사진 속에 역사와 애깃거리가 담겨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코너입니다.
사우회원님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일본에서 겪은 격랑^{激浪}의 80년대



추 성 춘(보도)

이 사진은 특파원이 뉴스 현장에 있다는 ‘증명’으로, 일본 국회 정문을 배경으로 약 30초 정도 녹화하는 장면이다. 뒷모습은 장식호 카메라 특파원.(부임 첫 3년은 정정일 특파원이었다) 이 ‘30초’는 통상 뉴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특파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결정적 장면이다. 사십 년 가까이 지난 지금 다시 보니, 장발은 그 시절의 패션이라 치더라도 얼굴은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을꼬. 얼굴을 활짝 펴고 웃는 얼굴로 시작하는 뉴스면 좋으련만! 그러나 그 시절 시청자라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지금도 큰 차이는 없지만,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한,일간의 갈등과 마찰이 불을 뿜던 ‘80년대’ 아닌가. 그 시절의 고달픔이 이 ‘30초’의 순간에도 배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 스스로를 ‘애국 특파원’이라고 중얼거리본적도 여러 차례였다.

1981년 초에 시작된 나의 도쿄특파원 임무는, 87년 탈북자 김만철 일가 11인이 일본 쓰루가항에 입항할 때故이득렬 앵커와 쓰루가항에서 뉴스 데스크를 공동 진행하는 것으로 끝난다. 6년 반. 80년대를 관통해 도쿄특파원의 머리를 지배한 건 ‘가해국의 오만과 독선, 피해국의 끝없는 분노가 부딪치는 갈등 한편으로 국익 추구’라는 현실외교의 무게 내지는 압박감이었다. 언론과 외교가 따로 있지 않았다.

1984년 9월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초 일본 방문이 실현된다. 그 해 여름, 각 언론사 해외 특파원 초청 청와대 간담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화제가 됐다. 당시 국민 여론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찬반으로 의견이 갈려 있었다. 대통령이 “주변에서 일본 방문을 반대한다”면서 의견을 묻기에 “국익 차원에서 방일은 꼭 실현돼야 한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1965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이 일어났듯이 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역사적인 한,일 정상회담’이 총체적인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봤기 때문이었다.



『푸른 신호등』 중계차의 핵심 멤버들



김 용 빈(기술)

1969년 3월 22일, 아현고가도로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 고가도로인 ‘삼일고가도로’(청계고가)가 개통했다. 서울 도심과 남산 1호터널을 연결하는 870미터의 이 도로는 1967년, 외자를 포함해 15억 3천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17개월만에 완성됐다. 삼일고가도로 건설은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이 주도했고, 유명 건축가 김수근씨가 설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8월 2일 철거가 시작되어 지금은 흔적도 없지만, 이 사진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3월 꽃샘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치던 31로 입구 공터에 중계차를 세우고 입사 5년차 고참인 나와 KBS에서 옮겨 온지 얼마되지 않은 고흥복씨가 인사동 사옥과 남산이 잘 연결되는지를 확인한 다음, 당시 라디오 주조 MD에서 막 건너 온 ‘푸른 신호등’ 담당 이견영PD의 큐 사인을 받은 입사 2년차 박명구ANN가 고가도로 개통에 대한 리포팅을 마치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다. 왼쪽 끝에 서있는 스포츠 머리 청년은 수습사원 윤상도씨, 기사는 이승규씨다.

‘푸른 신호등’이 출근 시간에 방송하다 보니 아침 식사는 언제나 외식이지만, 식당이 없는 곳이라도 가면 사진에서처럼 빵으로 대충 식사를 해결하곤 했다.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가 양복 정장에 버버리코트를 입은 신사(?)들인데, 대통령이 나오는 행사라서 나름 의상에도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짐작된다. 당시만 해도 MBC중계차는 그 자체가 MBC방송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여겨지던 시대라서 인기도 좋았고 위력(?)도 좋았다. 어느 관청이건 무사 통과는 물론이고, 특히 담당 PD의 위세는 서울시 전체를 들었다놔다할 정도로 막강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견영, 박명구, 이승규씨.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



윤상도, 김용빈, 이견영, 고흥복, 이승규, 박명구

斗陽里 윤재희 里長 방문기



김용철(보도)

5월 29일 아침 6시 30분, 양재역에서 77년 입사 동기인 유태희(관리), 이현우(ANN), 이재은(보도)과 함께 유태희의 SUV에 올라 동기 윤재희(관리)가 전원 생활을 하는 경남 하동으로 향했다. 중부와 대진고속도로를 달려 오전 11시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에 도착했다. 두양리는 산청군과 인접한 두방산(569m) 아래 있는 마을로, 두방산에서 발원한 두양천이 마을 앞을 가로질러 덕천강으로 흐른다. 두양천 다리를 건너 평지보다 좀 높은 산자락에 있는 집에 들어서자 윤재희가 반갑게 맞는다.

4백여 평의 집터에 30평 정도의 한옥이 아담하다. 뒷산을 배경으로 앞, 좌우가 탁 트여 일대를 내려다 보는 전망이 좋다. 덧붙여 지은 10평 규모의 창고에는 각종 농기구가 즐비하다. 반대편으로 넓직한 장독대에는 안주인이 정성스레 관리한

크고 작은 장독들이 반짝반짝 빛난다. 집터 경계선을 따라 유실수와 관상목을 심었다. 20년 이상 자란 감나무 10주를 비롯해 밤나무, 모과, 석류, 보리수, 측백나무, 뽕나무. 사이사이에 엄나무, 두릅, 돈나물도 눈에 띈다. 텃밭에는 상추, 고추, 감자 등 채소가 자라고 있다. 그는 2005년 진주MBC 사장에서 물러난 뒤 지리산 대한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일하다 2008년 이곳에 7천여 평을 사들여 정착했다. 주민들과도 적극적으로 어울려 마을 이장 직을 맡았다. 독실한 천주교도인 그는 성당이 없는 마을의 공소公所회장으로 본당신부를 대리해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이끌기도 한다.

집 뒷산에 올랐다. 가파른 임도를 따라 1Km쯤 올라가니 경상남도 기념물 제69호로 지정된 수령 천년의 거대한 은행나무가 나타난다. 둘레 8m20cm, 높이 27m. 윤 이장은 천 년동안 자연재해를 피한 이 나무를 보고 집터를 결정했다고 한다.

산에서 내려오니 부인께서 저녁상을 차려놓았다. 손수 가꾼 무공해

채소가 풍성하다. 소줏잔이 오가고, 툭 터진 거실 창밖 뒤편에는 달빛이 가득하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윤 이장이 관리하는 마을 표고버섯 재배장으로 향했다. 사방공사로 잘 정돈된 계곡을 옆으로 끼고 산속으로 이어진 임도를 10여분 달려 재배장에 도착했다.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 참나무 원목에 종균을 삽입해 표고버섯을 키운다. 윤 이장은 동네 청년(이라고 해야 모두 60대) 5명을 규합해 '두방마을 영농회'를 만들고 표고 재배에 착수했다. 군유지 5만 2천 평을 임차하고 참나무 원목 4천 개를 들여와 지난 3월 종균을 넣었다. 원목 구입과 종균비로 2천만 원을 투자했다. 6월에는 원목 진열 작업을 마칠 예정이고, 내년 가을부터 '소나무 그늘을 이용한 노지 자연산 표고'를 수확할 것이다. 소나무 그늘에서 자라 솔향이 흠뻑 배인 자연산표고는 하우스에서 연간



왼쪽부터 이재은, 유태희, 윤재희, 이현우, 김용철

생산하는 버섯보다 향과 맛이 월등히 뛰어나다. 거래가 있던 지인들에 공급하기도 부족할 것으로 자신한다. 수입은 마을 복지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윤 이장의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이재은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바쁘다.

해로하는 부부는 다투는다고 한다. '평생 남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다'는 윤 이장처럼 부인도 성품이 넉넉하다. 지난해 수확한 표고버섯, 직접 만든 딸기잼, 아토피에 좋다는 어성초, 건강식품 매실액, 귀가 길에 부인이 안겨준 꾸집한 선물이다.

광대는 가서 천편제로 돌아올 것이다



김종오(보도)

김철호가 갔다. 아무 배움없이, 한때 신문쟁이였던 그였지만 조간신문 그 어디에도 김철호의 부음을 기별하지 않았다. 그가 평생을 던져 기록으로 꿰었던 명창들의 레퀴엠도 있지 않았다. 마지막 자리는 적막이었고 꺾인 추임새로 난장을 휘젓던 김철호는 모든 끈을 놓아버리고 해제되었다. '올 망년회때 마시고 싶네요' 지난 봄, 암 자리가 아물었다며 던진 마지막 말이였다.

'나는 2등 국민이었지요, 학교도 고향도 먼저 다니던 직장도 다 한 데였소'. 80년대가 시작되며 요동하는 혼란 속에, 정동에서 만난 김철호는 술에 꺾여 그리 말하곤 했다. 사수 조수로 아침뉴스를 진행하던 우리는 밤을 새며 술을 마셨다. 그는 무엇이 억울하고 자유롭지 않다고 마셨고 나는 습관 때문이었다. 정동길 건너 언덕빼기 그 때운 아구탕 때문에 속을 버렸노라

고 김철호는 오랫동안 구시렁거렸다. 김철호의 열망은 어려서 탈출로부터 점화되었다. 엮혀진 것으로부터의 자유였다.

"이 애비가 여그 면장님하고 친하니께 농업학교만 나오면 면서기 취직은 문제없다 그 말이어" 정읍장을 휘감던 광대들 소리에 잠을 놓치곤 하던 김철호는 면서기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송아지 사려고 광에 넣어둔 돈을 들고 서울로 야반도주했다. '산투리 소리에 혼을 뺏겨 집시가 될 거냐'라는 아버지 호통을 따돌리고 꼬불쳐둔 장가밀천을 들고 데살로니키로 튼 희랍인 조르바를 읽으며 나는 둘이 펍 다했다고 생각했다.

객지로 나선 김철호는 치오르는 광댓기를 어찌지 못해 판소리며 설장구와 장단북, 끝내는 가야금까지 익히며 남이 흠뻑 못하는 소리꾼이 되었다. 자유롭다 했다. 그런 뒤 삶의 규격이 해체돼 좋다고 기자가 된 김철호는 해거름녘이 되면 소리꾼으로 변신하곤 했다.

그의 전화기 신호음은 판소리와

산조가락이었다. 이메일 주소창에는 귀명창이란 이름이 뜬다. 정동을 거쳐 여의도 기자생활을 하면서 편집부장, 경제부장, 문화부장, 해설위원 등 그의 이력은 성격대로 조근조근 쌓여져 갔으나 뒷견으로 내심 국악에의 염려는 늘 그를 조바심일게 했다.

굳이 더 조르바와 엮어보면, 허물어 내리는 갯도 끝 받침목을 떠받들고 선 희랍인의 모습이, 일테면 열두 바탕 가운데 다섯 바탕만 남아있는 판소리 복원과 전승을 가늠케 하겠다며 기울어진 국악거리 곳곳을 섭렵해온 김철호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가 쑥스럽다며 웃는다.

그는 틈만 나면 국악을 찾았다. 도심극장 뿐 아니라 장날이나 포장 걸립무대도 그의 터였다. 뒷풀이가 시작되면 김철호는 광대들과 날이 하얗게 밝아질 때까지 어울렸다. '광대들은 신앙처럼 나의 뇌리를 잠식해갔다'라고 그는 회억했다. 비천했던 그들 삶에 눈물을 뿌렸고 들어야 할 소리와 만나야 할 소리꾼들과 함께 덩굴었다. 그리고

는 배고픈 고독과 방황, 한과 슬픔 따위의 절망으로부터 처절한 득음에 이르기까지 소리에 미치고 춤사위에 혼을 놓아버린 광대들, 그 예맥을 걸망 베푼 담담한 광대룩으로 날날이 툭아냈다. 방송과 신문기자 시절의 열정 못지않은 숨가쁨으로 그는 치열했다. "광대, 타임머신을 타다"라는 책자를 낸다. 지난 가을이었다. 그리곤 아무 말 남기지 못한 채 돌아오는 길 없는 곳으로 갔다. 아문 암 자리를 대신 치고 온 뇌의 먹먹함이 2등 생각을 떨치고 이제사 자유인이 된 그를 문 밖에서 쓰러뜨렸다.

'가술', 변두리 소나무, 그의 아호다. 소년기와 탈농기, 도시 독거기의 외집에 젖으면서 늘린 스스로를 자화한 이름이다. 3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그와 술청을 기웃거리다가 가술로 방치했다며 그의 酒酒之友 安君은 지금도 애통해 하지만, 하늘의 김철호는 새로운 편지를 지어 우리에게 헌사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천편제, 녹향의 여운이 아직 그 떨쳐에 남아 있어 그를 그리워하게 하고 있다.

쫘므립쑤어(안녕하세요)



문 장 환(기술)

저는 2년 반 전에 “인생 2막은 마음과 영혼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나만의 여정”이라는 생각으로 캄보디아 정보부 Ministry of Information의 ‘디지털 전환 정책자문관’을 지원했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첫발을 디디는 두려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도착한 캄보디아는 듣던 대로 무덥고, 온갖 곤충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야 하고 또한 한국과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가진 ‘참 이해하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2년 반을 지내면서 보니 첫째 우리처럼 조급하지 않고 또한 모든 인간사에 정감이 있고, 둘째 7,80년대의 우리들처럼 국가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점차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캄보디아의 가장 큰 이슈는 7월에 있을 총리 선거로,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선거 관련 업무에 매달리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 사업은 순위가 밀려서 업무가 한가한 편입니다. 제가 도착한 초기에는 2018년 완성 목표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으나, 예산확보와 사업 순위 등의 문제로 현재는 2023년 까지도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 나라에 시급히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을 교육하고, 한국 기업의 후원을 받아 파견 전문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앙코르왓, 세계 최대의 뜰레 삼호수, 그리고 크메르 루즈를 이끈 독재정권인 폴포트 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캄보디아를 저개발국,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가난하고 무능한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프놈펜 시내에는 수많은 외제차량(캄보디아에는 생산공장이 없으므로 다 외제차입니다)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10년 넘은 중고 또는 폐차 수준의 차량이지만 마치 새 차처럼 재생산해 낸 것들입니다. 교통수단도 많이 개선되어 휴대폰 앱으로 택시나 앱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고, 중앙분리대와 가로등,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교통 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프놈펜과 시엠립 등 대도시에는 곳곳에 마천루와



앙코르왓을 배경으로

이러한 투자의 상당 부분은 중국 자본입니다. 중국은 ‘2014년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양 진출을 위해 캄보디아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보부 장관 예방

새로 공사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대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최대 항구인 시아누크빌 근처에 군항 건설을 위한 조차권을 얻어 40만 명이 거주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건설할 인력을 중국에서 들여와 건설 후에는 현지에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캄보디아는 중국에 더욱 종속적인 경제체제로 전환될 것이지만, 외형적인 캄보디아의 모습은 현대적인 면모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앙코르왓, 바이운사원, 앙코르 톰 등 이미 잘 알려진 유적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발굴되어 개방되는 유적을 건설한 앙코르 제국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암사라 춤 등 화려한 예술 및 이러한 왕조를 세우는 것이 가능토록 한 이 나라 고유

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 캄보디아 사람들의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으로 한 때는 동남아시아 반도 전체를 호령하는 영화를 누렸으며, 당시 문자가 없었던 태국은 앙코르 제국이 쇠퇴한 이후 캄보디아의 언어학자를 끌고 가 태국어어를 만들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광활한 평야, 자연 자원과 높은 교육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 젊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해 5,000명이 넘는 ICT 전공자들을 배출하고, 이 인력들은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선진 산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12월이면 3년간의 자문관 생활이 끝나게 되지만, 저는 이후에도 캄보디아에서 생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낯설어 보이던 광활한 풍광도 이제는 눈에 들어오고, 그간 익혀온 캄보디아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정도로 현지 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현지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지인과의 교류도 넓히고 있습니다. 2년 반 정도를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며 느낀 또 다른 점은, 저보다 연세가 높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남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겠다는 이러한 분들의 생활 태도에 많은 감명을 받았고, 저 또한 다시 한번 도전해야겠다는 다짐을 갖게 됩니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이러한 다짐이 인생 2막에서 다시 무엇인가 도전을 하는 삶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우회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훈센 총리 부부와 함께

월산회를 소개합니다



김진홍(관리)

〈월산회〉는 문자 그대로 매주 월요일에 산을 찾는 모임이다. 2008년 2월, 기술부문의 박종규, 신원호, 이원하, 박명하 등 고등학교 동창 4명이 월요일에 우면산을 찾는 산행으로 시작했다. 다음 달에는 김성한(관리), 김종현(기술), 김진홍(관리), 윤풍기(관리), 윤희섭(보도), 임준석(기술), 정광수(기술), 정재순(기술), 정태식(기술) 등 9명이 합류를 함으로써 특정 부문을 넘어 사우회 동료끼리 친목과 건강을 지키자는 목적으로 산행을 계속하게 됐다. 10년이 된 2018년 현재 월산회원은 김수량, 김종현, 박종규, 신원호, 이원하, 이은용, 정광수(이상 기술부문), 김성한, 김진홍, 윤희철, 최병태(이상 관리부문), 윤희섭, 장영준(이상 보도부문) 등 13명이다.

매주 만날 때 마다 뒤풀이 회비 1

만원과 여행 적립금 1만원 도합 2만원을 각출하고, 회비 1만원으로 모자라는 뒤풀이 비용은 회원 본인 생일과 가정 경조사 시에 산행 후 식대를 협찬하여 뒤풀이 부족분을 채우고 남은 돈은 등산용품 구입에 나누기도 한다. 여행비로 매주 1만원씩 모은 적립금을 기금으로 하고 부족한 돈은 더 보태서 올해까지 해외여행 5번, 국내여행 7번을 다녀왔다. 국내 여행 시 스타렉스를 렌트하다 보니 11명밖에 탈 수가 없어 회원을 더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식대가 그날 회원 참가수와 식당에 따라 가격차가 많이 나 공평하게 하고자 생일날 일률적으로 20만원 협찬으로 바꿨다.

최근에 다녀 온 여행지는 라오스. '뉴욕타임즈'가 '세계 1위 여행지'로 지목했으며, 국내에서는 '꽃보다 청춘'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주목 받기 시작한 곳이다. 우리나라의 두 배가 조금 넘는 면적에 인구 700만 명. 70%이상이 산악지대인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

면서 국민의 90%이상이 소승불교 신자다. 석가모니의 머리카락 사리와 유물을 모신 곳으로 유명한 '타트앙사원'을 시작으로, 1958년 라오스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파리의 개선문을 본떠 만든 탑인 '빠뚜사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꼽힌다는 '왓 씨에통' 등의 유적지를 돌아봤다.

구멍조끼에 헤드랜턴을 쓰고 튜브를 타며 밧줄을 잡고 낮은 자세로 동굴 속을 탐험하는 '탐남동굴' 체험과, 나무와 나무사이에 줄을 걸어 공중낙하하는 짜릿한 '짚라인' 체험, 작은 카약에 가이드와 함께 3명이 탑승해 노를 젓는 '카약킹' 등은 우리를 어린애처럼 흥분시켰고, 산악용 자동차를 타고 방비엥 지역의 바나나농장의 모습과 현지인들의 생활상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지문화 체험은 또 다른 귀



중한 선물이었다.

뭐니 뭐니 해도 여행의 즐거움은 사람들과의 어울림이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한다는 것은 서로를 더욱 가깝게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된다. 회원들이 대부분 70살 근처라 기운들이 없을 만도 하건만 웬걸, 카약킹을 타고, 타잔처럼 짚라인 줄도 타고, 산악자동차 운전도 하며, 블루라군에서 나무위에 올라가 다이빙을 할 때는 마치 이팔청춘인 듯 착각 속에 더할 수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젊은 시절부터 같이 부대껴 온 우리. 끝까지 이대로 쭉쭉 "가즈아~"

www.jceye.co.kr

안과수술 내과·건강검진은, 여의도 JC빛소망안과!



- 내과/건강검진센터 운영
- 각 분야별 8명의 전문의 협진 시스템
- 노안 백내장 수술 56,000건 이상
- 단일층 1,100평 규모
- 첨단 검사 및 수술 장비 보유



[문의/예약] 02.2138.1063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맨하탄빌딩 6층 (구,여의도백화점)